# 귀농인은 고흥, 귀어인은 신안·여수 '인기'

스마트팜 혁신밸리•폐염전 활용 태양광 사업 정책 영향 분석 지난해 전남 1966가구 귀농・297가구 귀어…전국 규모는 줄어

고흥이 지난해 귀농인이 가장 많았던 전국 5개 지역 중한 곳으로 꼽혔다. 신안과 여수는 귀어인이 많은 전국 5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해양수산부·통계청과 공 동으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 르면 지난해 귀농인 1만 2660명 가운데 181명이 고흥으로 귀농, 귀농인 규모가 높게 나타난 상위 5 개 지역 중 한 곳으로 나타났다. 고흥 외에 경북 의 성(213명), 경북 김천(193명), 경북 영천(180명) 등이 귀농 인기 지역으로 꼽혔다.

고흥의 경우 도심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데도 청년 보육단지,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임대형 단지를 갖춘 첨단농업 융복합단지인 스마트 팜 혁신밸리에서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려는 귀농인 들의 이주가 많았다.

지난해 들어선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미래 스마 트 농산업 기술 교육을 통한 창농·창업 교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귀농이 증가했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 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땅값 등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귀농인들에게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2~3개월 농촌에서 살아보도록 지원하고 있는 전남도와 고흥군의 정책도 귀농 인 구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도 별로는 경북(2530가구) 다음으로 전남(1966가 구)의 귀농 가구가 많았다.

귀어인도 비슷하다. 귀어인이 많은 상위 5개 지 역으로 전남에서는 신안(80명) 여수(62명)가 충 남 태안(195명), 충남 보령(68명), 전북 부안 (55명) 등과 함께 꼽혔다. 신안의 경우 어선을 빌 려주고 폐염전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연금을 받는 정책 등이 도시민들의 귀어 지역 선택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충남 (324가구) 다음으로 전남(297가구)의 귀어 가구

다만,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도시 지역 경기 회 복 등이 이어지면서 2019년부터 20201년까지 증가 했던 귀농·귀촌 인구는 3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 고 귀어 가구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귀농인은 전년(1만4461명) 보다 12.5%(1801명) 감소한 1만 2660명에 머물 렀고 동반 가구원(4246명)도 전년(5315명)보다 20.1%(1069명) 줄었다. 가구(1만 2411가구)수 도 전년(1만 4347가구)에 비해 13.5%(1936가 구) 감소했다.

귀어인도지난해(1023명)가전년(1216명)보다 15.9%(193명) 감소했고 동반가구원(233명) 도전 년(281명)에 견줘 17.1%(48명) 줄었다. 지난해 귀어 가구(951가구)는 전년(1135가구)에 비해 16.2%(184가구) 감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22일 광주 북구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3년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에서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직원과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

팀들이 전시할 로컬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내년 쉬는 날 119일 올해보다 이틀 많아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 이 모두 119일에 달해 올해 117일보다 이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 로 9월 14~18일까지 5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 발표했다.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는 올해 와 같은 68일이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 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 일 18일을 더해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 요일과 겹쳐 68일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에 포함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 일)이 토요일과 겹침을 고려하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이다. 추 석 연휴는 내년에 유일한 5일 연속 휴일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 해당 공무원에겐 휴일이다. 제주도 4·3희생 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 념일(5월 11일),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5월 18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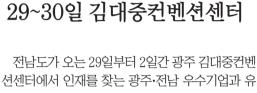
#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

능한 구직자 만남의 장인 '제5회 광주·전남 합동 일 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참가를 바라는 구직자는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https://job.jeonnam.go.kr) 커뮤니티, 알림마 당에서 참가기업 현황과 기업별 채용사항을 확인하 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로 사전 참가신청을 하거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해 박 람회에 참여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 제공 과 현장 면접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박람회에서는 광주시·전남도, 고용부에서 추진 하는 청년·신중년 일자리정책과 각종 취업 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 박람 회 스탬프투어 이벤트,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힐링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엔 광주·전남 우 수 기업 55개 사가 참여해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총무, 일반사무원, 전기부품 조립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230여 명을 채용할 예

취업률 제고가 기대된다.

상담테라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 길이 2m '이순신 장도' 국보 된다

충무공 애국정신•역사성 상징 귀한 유물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장도가 국보가

약 2m 길이의 '이순신 장도'(사 진〉는 크기와 형태가 같은 한 쌍으로 충무공의 애국정신과 역사성을 상징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인 '이순신 유물 일괄' 가운데 칼 한

하는 귀한 유물로 평가된다.

쌍을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196.8cm의 칼에는 이순신이 지은 시구 인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라는 문 구가 새겨져 있다.

또 다른 197.2cm 길이의 또 다른 칼에는 '일휘 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한 번휘둘러 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시구가 새 겨져 있다.

칼자루는 나무에 물고기 가죽을 감싸고 칠 을 했다. 칼자루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 록 금속판을 댄 후 검은 칠의 가죽끈을 교차 감



칼자루 속 슴베에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글귀도 있다.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뜻의 '갑오사월일조태귀 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 라는 글귀가 그것. 문화재청은 갑오년은 1594 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도'는 조선시대 군용 도검형식을 띄고 있다"며 "제작연대와 제 작자가 뚜렷하고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 해 완성도가 높다"고 부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보물됐다

다산 정약용 '만덕사지' 편찬…불교·유교 교류 거점

18세기 이후 불전 건축의 장식화 특징을 잘 보 여주는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사진〉이 보물이

특히 백련사는 승려들이 다산 정약용(1762~ 1836)과 협업해 '만덕사지'를 편찬하는 등 불교와 유교의 교류 근거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찰이다.

문화재청은 고려 말 원묘국사 요세(1163~ 1245)의 결사처(불교의 혁신운동)로, 조선시 대 많은 승려들이 수행했던 강진 백련사의 대웅 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2

백련사의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공포의 형식 과 초각 등 세부기법이 화려하며, 기둥 상부의 용머리와 천장 상부의 용머리 장식 등이 해학적 이며 섬세한 게 특징이다. 1760년 화재 이후 1762년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단층 건

또한 대웅보전 중수 기록인 '만덕산백련사대 법당중수기'와 사찰 기록인 '만덕사지' 등이 전 해지고 있어 불교사와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 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대웅보전 현판 글씨는 조선 후기 명필 원교(圓嶠) 이광사의 작업이며, 법당 실내에는 신라시대 명필 김생의 글씨가 집자돼 있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백련사 역사를 통해 권력과 민중, 불교와 유교의 상호교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웅보전은 그 한 시기를 예증하는 건물"이라며 "불교사와 건축사를 두루 고찰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꼭! 받아야할 본 회수

#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직통전화 062) 521-4109 010-2860-4700

### • 금당부동산 •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650㎡ (801평)

-경관 아주 좋음. 별장형 빌라, 숙박시설 등 적합 -본땅 2,346㎡(710평). 도로 포함 801평. 매도 7억5천만원

####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공시지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670㎡ (202평)

-전원생활적합 950만원 (평당 47,029원)

#### 집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침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 물칼리) 최고화질

####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3.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5. LED전광판의 특징
-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